



슬로바키아 여·야당, EFSF 법안 승인에 합의

최원 선임연구원

- 슬로바키아 의회는 유럽 재정위기관리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(EFSF)의 대출여력 증액과 기능 확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10월 11일 부결함.
 - EFSF 법안 발효를 위해서는 유로존 17개 회원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,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16개 회원국 의회는 이미 법안을 승인한 상태임.
 - 슬로바키아 의회는 10월 11일 EFSF 법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시행하였으나, 법안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과반 수(76석) 찬성표에 21표가 부족한 55표의 찬성을 얻는 데 그치면서 법안이 부결됨.

- 법안 부결로 EFSF 재원을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인 유럽 은행 자본확충 등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계획들이 차질을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었음.
 - 법안 통과로 EFSF 대출여력이 2,500억 유로에서 4,400억 유로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었으나, 슬로바키아 의회의 법안 부결로 EFSF 대출여력 증액 계획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음.
 - 또한, 재정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채매입, 은행 자본확충 지원, 신용공여 등을 EFSF 기능에 추가하려는 계획도 법안 부결로 이행되지 못할 위기에 처하였음.

- 그러나 여·야당이 10월 14일까지 재투표를 통한 법안 승인에 합의함에 따라 EFSF의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.
 - 4개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 의석수가 79석으로 의회 과반을 확보하고 있으나 21석을 차지하고 있는 연립정부 내 제2당인 자유외연대당이 EFSF를 위한 추가 분담금 납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.
 - 그러나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 대표가 투표결과 발표 후 유로존 안정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재투표에서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며, 10월 12일 여·야당은 2012년 3월 10일 조기총선 시행을 조건으로 재투표를 통한 법안 승인에 합의함.

(Financial Times 등, 10/11)